혜경스님은?

불경 번역 '남다른 열정'

1933년 전남 여수에서 나신 스님은 56년에 서울대 사회과를 졸업하신 후 불법에 귀의했다. 법명은 혜경(惠耕) 당호는 회옹(晦翁)이시다. 법화불교대학 학장과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을 지내셨고 현재는 무설정사에 주석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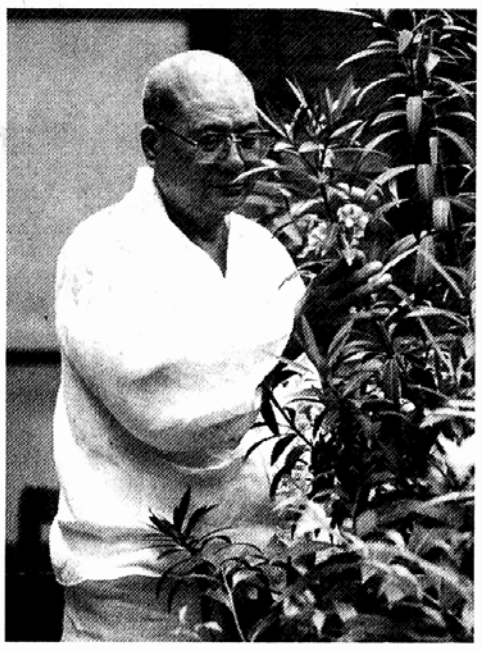
스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불경을 번역하고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셨다. 번역 · 저술 목록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법화경 이야기〉(범우사), 법구경 입문(범우사), 〈법화삼부경〉(문학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양),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양), 〈관무량수경〉(집문당) 등 다수의 경전을 번역하고 그에 대한 해설서를 펴내셨다.

스님의 저술은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인문 ·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해박함과, 활달하면서도 정교한 논리로 불경의 난해함을 극복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특징적인 면은 학문적 접근과 신앙적 접근 중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문에 집착하는 창백한 태도를 경계함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맹목적 신심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학문적 진지함이 지나쳐 종교적 엄숙함을 거세시키지도 않고, 종교성을 앞세워 합리적인 이해를 가로막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혜경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수유리의 '무설정사'는 법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부처님법 듣는 사람 누구라도 언젠가 부처 이룰 수 있어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엇 무엇'이라고 단정하여 개념화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신비주의로 오해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경전을 읽더라도 몸으로 읽고, 사물을 보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觀)이란 것도 그래요. 단순히 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보라는 것이고, 행을 통해 앎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현재 쓰고 있는 불가의 말 중에서 잘못 쓰이는 대표적인 예가 '보살'이예요. 관세음이나 문수, 지장 등 그야말로 대승 불자의 궁극에 도달한 존재에나 합당한 말이 절에 다니는 아주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호칭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쓰임이지요. 하지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인양 비난할 건 아닙니다. 참다운 보살이 되라는 '격려사'로 생각하면 그리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닦음과 실천이 결코 둘이 아니예요. 위로 보리를 구한다(上求菩提)면서 어찌 아래로 중생을 구제(下化衆生)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러 깨달음 그 자체에 집착하여 하화중생은 염두에도 없는 수행자가 있어요. 안 될 말이지요."

그렇다면 나 같은 중생도 하화중생할 수 있단 말인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지 않은가.

"하화중생하면 절로 상구보리가 됩니다. 물론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처가 영원하면 불성을 지닌 나도 영원하다, 불자(佛子)인 나는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에 투철해야겠지요. 그런 믿음 위의 하화중생은 곧 상구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주저되는 바가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의 언저리에도 못 가 본 형편에 누구를 구제한단 말인가.

"앞아 있는 것만을 수행의 능사로 여기지 말고, 용맹정진을 참선에 한정하지 마세요.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普施) 하나만 제대로 행해도 보살도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운 재물을 나누다 보면 절로 인욕(忍辱)도 되고 지계(持戒)도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사는 법을 전하는 일입니다. 법을 나누는 사람이면 당연히 재물도 나누게 되겠지요. 쌓을수록 고민덩어리가 커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재물을 나누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덕(德)은 베푸는 데서 나온다고 했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듯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화경〉의 핵심인 회삼귀일(會三歸一) 사상을 보세요. '삼승(三乘) 즉 성문 · 연각 · 보살의 근기가 저마다 달라서 수행과 증과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일불승(一佛乘)에 귀착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점이 〈법화경〉을 수승함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근기에 따라서 세 가지 정토가 있습니다. 하근기에는 가고자 하는 극락정토가 있겠고, 중근기에는 이 세상에 실현하려는 극락 정토가 있을 것이며, 상근기에는 이 세상이 곧 극락인데 달리 어디서 극락을 찾을 것인가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극락이라 하는 입장이 바로 〈법화경〉의 대긍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승이 다 일불승(一佛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승은 삼승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곧 극락이요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의심치 말고, 그러한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불법의 실천이며 보살도를 완성하는 가장 쉽고도 올바른 길입니다."

"부처님 신격화 불교근본종지 욕되게 끊임없는 수행 중요"

초저녁부터 시작된 스님과의 만남은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계속됐다. 아쉽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자 반가운 소식 하나가 귀를 연다.

다음 날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에서 〈법화경〉 강의를 하신다는 것이다. 더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붓기를 기약했다.

다음 날, 흥사단 강당. 간단한 법회의식이 끝난 다음 스님의 강의가 시작됐다. 교재는 스님께서 번역하신 〈우리말법화경〉. 강의 내용은 '화성유품(化城喩品)'.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항상 성불의 길을 설해 왔으므로, 만일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성불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믿지 않아 현재 2승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후에 기필코 그 가르침을 자각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꼭 새기세요. 부처님의 법을 듣는 사람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부처를 이룰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불자(佛子)임을 잊지 마시고 널리 법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세요.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성불의 가능성을 스스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스스로를 건지는 길입니다. 조금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불부도(佛不度)'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모두가 부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열심히들 정진합시다."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자비행회(회장 어수정 · 71)'의 회원들로, 13년 전부터 약 200명이 모여 불경 공부와 함께 청소년 장학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30대 아주머니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한 말씀 한 말씀을 그야말로 몸으로 듣는 듯했다. 취재를 마치며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앞으로도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칠 계획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잡고 대중을 상대로 한 강의보다는 무릎맞춤을 하고 한 마디 한 마디 온 정성을 들여 공부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실 것이라 한다.

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 불굴스님(하)



80년대 중반 불굴 스님이 지리산 칠불암에서 올린 백일 기도의 가피는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신심이 나게 만든다. 그 해 겨울 안거를 지내기 위해 칠불암을 찾았다. 그러나 그 겨울에는 스님들이 많이 몰려 늦게 온 불굴 스님은 입방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그때 선원에서 공부하지 못할 바에는 기도를 올리자고 마음먹었다. 선방 대신 기도하는 조건으로 동안거를 지내게 된 셈이다. 당시 스님은 허리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 쑥뜸을 뜨기고 하고 심지어는 똥물까지 마셔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좀처럼 낫지 않았다. 칠불암에서의 백일 기도는 허리병이 있는 환자로서는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한 것이다. 꼼짝없이 선 채로 해야 하는 기도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불굴 스님은 하루에 네 번, 선방에 앉은 스님들과 똑같이 기도로써 정진하였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법당에서 나오지 않았다. 회향 일이 가까워오자 스님은 21일 용맹정진을 각오하게 된다. 다시 말해 21일 동안 잠 자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저녁밥 먹고 기도에 들어가면 다음 날 아침까지 꼼짝 않고 기도를 올렸다고 하니까, 그때의 신심과 원력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

칠불암서 선 채로 백일기도 요즘 하루 12시간이상 염불

그렇게 용맹정진 기도하기를 일 주일 되는 날 새벽, 하얀 수염에 도포자락을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그 노인은 긴 침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침을 불굴 스님의 항문으로 쑥 집어넣더라는 것이다. 뭉클한 느낌이 드는 순간 다시 그 침을 쑥 빼더라는 것이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법당에서 목탁을 치고 있었고 그때야 그 노인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때 침을 맞던 느낌을 말할 때 스님은 삼천 대천 세계가 환히 열리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하신다. 아마도 업이 일순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적은 그 때부터 일어난다.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돌리지도 못했는데 스르르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변을 볼 때에도 고개를 숙이지 못했는데 거짓말처럼 숙여지더란다. 한 마디로 허리병이 다 나아버린 것이었다. 그때 비로소 스님은 부처님 가피와 영험을 확신하게 됐다. 불굴 스님은 업으로 인한 병은 허리로 온다고 믿는 분이다. 이러한 허리병의 치료는 수술로는 불가능하고 기도 가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그 때부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 지금까지 천일 기도를 세 번이나 마쳤다. 어떤 절에서는 목탁소리 시끄럽다고 쫓아낸 적도 있었단다. 스님은 기도를 하면서 화두를 챙긴다고 하신다. 물 흐르듯 쉼 없이 기도하시는 스님을 뵈면, 염불삼매와 선정삼매는 결국 같은 힘인 것 같다. 몸이 건강해야 화두가 성성하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업이 맑아야 그 어떤 수행에도 마장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불굴스님이 계시는 가평의 작은 암자는 토굴 같은 절이다. 처음 그곳에 터를 잡고 기도를 할 때는 남의 창고를 빌어 시작하셨단다. 그때 스님은 신문지를 깔고 공양을 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없었다. 어느 날 십만 원 짜리 불공이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밥상을 마련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신다. 지금도 스님의 기도는 여전하다. 하루 12시간 법당에서 목탁을 두들기고 어쩌다 신심이 나면 밤샘까지 하신다. 가끔 스님이 계시는 암자에 들러 스님의 목탁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도 없는 내 삶이 참 부끄럽게 느껴진다.

가평은 불굴 스님이 군대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통신병으로 가평 지역의 산을 누비면서 그 산세가 무척 다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먼 훗날 절을 지으면 꼭 가평에 터를 잡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약속했는데, 지금에야 그 원력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 군대를 가게 된 재미난 일화가 있다. 신체 검사가 나오자 스님은 월남에 가고 싶었단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사지(死地)에 간다는데 남의 일처럼 무표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곤곤하게 이어진 부모의 정을 그 일을 통해 끊을 수 있었다고 한다.



불굴스님은 마치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경 비구 같다. 그 누구도 가벼이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들지 못했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논쟁이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강원 시절의 도반들은 놀란다고 한다. 독선과 괴각질로 유명했던 불굴 스님이었으니 그럴 만도하겠다.

번뇌가 많으면 깨달음도 크다고 했던가. 위기를 바꾸면 기회이듯 수행자는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불굴 스님은 수행자의 방황과 갈등을 공부로 잘 승화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굴 스님은 늘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나 마찬가지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춘추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하 복 :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음
◈ 장 삼 :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가 방 :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불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춘추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춘추복	두루막 남·여	130,000
하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하복	두루막 남·여	130,000
장 삼	조계종	200,000
장 삼	태고종	200,000
손가방	大	28,000
손가방	小	23,000
바 랑		30,000

※ 사이즈별로 디자인하게 생산함
※ 맞춤 전문으로 생산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용 B/D 3F 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